

每日新聞

[함께 꿈꾸는 시] 신윤자 '가꿈은 나도'

문화부 jebo@imaeil.com

매일신문 입력 2024-10-28 06:30:00 수정 2024-10-06 16:15:22

2011년 '심상' 등단

대구 시인협회 이사, 대구문인협회 낭송위원회원



신윤자 시인의 가꿈은 나도 관련 이미지

<가꿈은 나도>

목젖 추스르는 새벽이슬 되어 나, 들길에 서고 싶다

등짐의 삶 새털처럼 내려놓고

외진 들꽃 세로 선 수줍음에도

강충, 키 자란 갈대 의연한 몸놀림에도

내 생의 어눌한 손 마주 흔들며 가끔은 혼자이고 싶다

눈꺼풀 없는 구름 교대 없이 멈춰 굽은 등 펼 때

나무꾼이 타고 올랐다는 동아줄은 세속의 계단에 내려질까

날개 없이 잘도 휘도는 바람처럼, 닿고 싶은 그곳

미루나무 한 그루 이정표처럼 서 있었으면 좋겠다

땅으로 실한 뿌리박고 팔 벌려 그늘 만든 그 어디쯤

7년의 허물 벗고 거듭난 매미

하늘 가려도 모자랄 사랑 문장

수틀 같은 허공에 꽃수로 새겨

한 생이 짧을수록, 어둠 깊이 숙성된 영혼 하나로

갈등 없는 숲에 홀이불로 덮일 매미 울대처럼

가끔은 나도 들길의 지운 경계를 노래하듯

물구나무 선 그리움

수취인 없는 봉투에

말 없음의 부호 될 꽃씨로

밀봉시키고 싶을 때가 있다



신윤자 시인

<시작 노트 >

올려다본 하늘이 청명한 어느 날 문득...